

북종선에서 남종선으로 주도권 교체 거사들 역할 커

<24> 선사(禪師)문화의 거사들(5)

신수(神秀)-보적(普寂) 계통의 북종선(北宗禪)이 제도(帝都)로부터 위세를 떨칠 때, 남방에서는 같은 동산법문(東山法門) 출신인 혜능(慧能) 선사 문하로부터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대거 배출됐다. 그 가운데 제도로부터 혜능 선사의 남종선(南宗禪)을 선양하는 계기를 만든 이가 바로 하택사회(荷澤神會) 선사였다.

신회 선사는 출가 이전에 유가와 도가에 대해 아주 철저히 이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3세 출가 후에는 형주(荊州) 옥천사(玉泉寺) 신수 대사 문하에서 3년 동안 북종선을 수학했다. 때문에 신회 선사는 북종선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 대족(大足) 원년(701) 신수 대사가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칙명으로 임명된 이후, 신회 선사는 남하해 조계(曹溪)로 가서 혜능 선사의 제자가 됐다. 신회 선사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왕유(王維) 거사의 <능선사비(能禪師碑)>에 "신회 선사가 만년의 혜능 선사를

게 귀의한 거사들에 대해 살펴본다.

혜능 선사 입적 후, 개원(開元) 8년(720) 신회 선사는 황제의 명령으로 남양(南陽) 용흥사(龍興寺)에 주석했다. 이때 그곳의 태수 왕필(王弼)과 현령 장만경(張萬頃) 거사의 귀의를 받아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했고, 남양지방의 교화를 크게 일으켰다. 왕필과 장만경의 구체적인 행적은 분명하지 않지만, <신회어록(神會語錄)>에 두 거사와 신회 선사와의 문답이 보인다. 거사와 선사의 문답을 볼 때, 두 거사의 불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사들의 지지는 신회 선사가 남종선의 선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으로 짐작된다.

개원 21년(733), 남양지방으로부터 비롯된 북방의 관료사대부 거사들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신회 선사는 활대(滑臺; 현재 河南省 滑縣) 대운사(大雲寺)에서 '무차대회(無遮大會)'를 개최하며 신수·보적



생명의 율동을 포착하고 파악해 표현한 것이다. 한 없이 광활하고 고요한 가운데 명월이 흘러 떠올라 천지에 은근히 빛을 뿌리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으니 오려려 이에 스스로 '두려운' 산세가 움직인다. 산세가 '봄 개울에서 때때로 우는 [時鳴春澗中]'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운치를 이룬 표현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견심(見心) 혹은 "견성(見性)의 묘제(妙諦)를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한다. 이는 명확하게 '명심견성(明心見性)'을 제창하는 남종선의 품격을 느끼게 해준다.

북종선의 절대적인 지지자였으며, 신수 선사의 입적 후 <대통선사비(大通禪師碑)>를 찬술했고, 세 황제를 모시며 30여 년간 대정(大政)을 맡았던 장

수년 걸쳐 진행된 활대 무차대회 남둔북점 기치 성립 왕필·장만경·송정·왕유·장설 거사 신회 선사에 귀의

만나 중년에 이르기까지 도(道)를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비록 늦게 혜능 문하에 들어왔지만, 혜능 선사의 입적시까지 시봉해 혜능 선사의 십대제자의 반열에 들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혜능 선사의 남종선을 크게 선양한 이는 바로 신회 선사다. 근대에 돈황(敦煌) 사본(寫本) 가운데 최초로 신회 선사의 저작을 발굴하고, 수차례에 걸쳐 그에 대한 교감(校勘)을 진행하여 편찬한 호적(胡適) 선생은 <신회회상유집(神會和尚遺集)>에서 신회 선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혁명가, 인도선(印度禪)의 궤멸자(毀滅者), 중국선의 건립자, '가사전법(袈裟傳法)'이라는 위조의 역사를 건립한 자, '서천이십팔조(西天二十八祖)'의 위사(僞史)를 최초로 세운 자, <육조단경(六祖壇經)>의 소재를 최초로 제공한 자, 역사를 조작해 혁명의 무기로 사용한 최대의 성공자가 바로 신회 선사이다."

이러한 호적의 평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체로 신회 선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다. 이러한 신회 선사의 활약은 당연히 그 배후에 선사를 지지한 영향력 있는 사대부 거사들의 작용이 있어 가능했다. 따라서 신회 선사에

의 북종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과 '육조현장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기에서 신회 선사가 주장한 논리는 바로 "사승(師承)은 방계(傍系)이며, 법문은 정수(正統)라는 것이고, '혜능 선사의 남종이야말로 달마-혜가계 남천축일승종(南天竺一乘宗)의 참다운 계승자'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선사는 달마 대사가 법통의 신물(信物)로서 '가사(袈裟)'를 전수했고, 그것이 혜능 선사에게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이러한 신회 선사의 주장은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달마-혜가계와 도신-홍인의 동산법문이 교류했다는 역사적 근거는 현재의 사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법통의 증거라는 '가사'도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활대의 '무차대회'의 사정은 독고패(獨孤沛) 거사에 의해 <보리달마남종정사비문(菩提達摩南宗定是非論)>에 자세히 기록됐다. 이는 돈황에서 발견된 <신회어록>에 게재돼 있다.

독고패 거사의 서문에는 "제자는 신회 화상의 법회에서 화상과 승원법사(崇遠法師)가 여러 이치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보고는 이 책을 지었는데, 개원 18-20년(730-732)의 3년 동안 그 의문이 확정되지 않아 책을 완성시킬 수 없었다. 의문하는 바가 모두 다르니 이제 개원 21년에 논쟁한 내용을 발해해

한 권으로 묶는다"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활대의 무차대회는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됐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유명한 '남둔북점(南頓北漸)'의 기치가 세워지고, '남종'과 '북종'의 대립이 발생했다.

천보(天寶) 4년(745), 병부시랑(兵部侍郎) 송정(宋鼎)은 신회 선사를 향해 낙양(洛陽)의 하택사(荷澤寺)에 주석하도록 한다. 이로써 세상에서는 '하택(荷澤) 선사'라고 호칭하게 됐는데,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실린 선사의 전기에 따르면, "천보 4년 양중, 남종의 혜능 선사의 돈교와 북종의 신수 대사의 점교[南能頓宗北秀漸教]를 확정하고, <현종기(顯宗記)>를 찬술해 세상에 성행했다"고 한다.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신회 선사는 낙양의 하택사에서 매달 법회를 열어 대중을 위해 설법하되 청정선(淸淨禪)을 타파하고 여래선(如來禪)을 세웠고, 조계(曹溪)의 요의교(了義教)가 낙양 전역에 퍼지고 하택의 돈오교리(頓悟教理)를 온 천하에 성행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찍이 신수·보적의 북종선에 귀의했던 수많은 거사들이 다시 신회 선사에게 귀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왕유(701-761) 거사는 본래 북종의 신수·보적 선사에게 귀의했지만, 신회 선사가 낙양에 머물자 신회 선사에게 귀의한 열렬한 남

종선의 예찬자다. 왕유 거사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유마힐(維摩詰) 거사'를 추종해 호를 '마힐(摩詰)'로 했다. 개원 9년(721)에 진사에 합격하여 벼슬이 감찰어사(監察御史), 고부랑중(庫部郎中)의 고위관직을 역임했다. 무엇보다도 거사는 선시(禪詩)로 유명하다.

거사의 시 세계는 북종선을 추종했을 때와 남종선에 귀의했을 때의 시경(詩境)이 상당히 달라 흥미롭다. 예를 들면 거사의 전기 작품인 '향적사를 지나며 [過香積寺]'라는 시에서 가운데 '해질녘 사람 없는 못 가에서, 편안히 선정에 들어 독룡을 제압한다[薄暮空潭曲, 安禪制毒龍]'는 두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서 '독룡(毒龍)'이라는 망심(妄心)을 '안선(安禪)'이라는 점수(漸修)의 수단으로 '제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수심간정(修心看淨)'을 제창한 북종선의 사상적 자취가 엿보인다.

거사는 40세에 신회 선사를 만났다. 그 이후의 작품인 '조명간(鳥鳴澗)'이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사람은 한잔인데 계속나무에 꽃이 떨어진다. 밤은 고요하고 봄 산은 적막한데, 달이 뜨니 산새가 놀라서, 봄 개울에서 때때로 우는구나[人閑桂花落, 夜靜春山空, 月出驚山鳥, 時鳴春澗中]."

이 시는 사람의 움직임과 소리로 오히려 공적한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동(動)'과 '정(靜)' 속에서

설(張說) 거사 역시 신회 선사가 낙양에 머물자 신회 거사에게 귀의했다. 특히 거사는 신회 선사의 '무념(無念)' 설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신회 선사와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에 따라 당시 사대부의 고위관료 사이에 '무념' 설법이 크게 유행했다.

이렇게 왕유, 장설 거사와 같은 고관들이 신회 선사에게 귀의하자 수많은 사대부 거사들이 줄지어 신회 선사에게 귀의했다. <신회어록>에는 예부시랑(禮部侍郎) 소진(蘇震) 등 당시 고위관료들의 이름이 20여 명이 등장하는데, 그들과의 문답은 불교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수준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사대부 거사들의 귀의는 신회 선사의 '육조혜능현장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했고, 결국 '남종선'이 북종선을 밀어내고 제도불교의 주류를 이루게 했다. 더욱이 '안사(安史)의 난'이 발생해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신회 선사는 이른바 '향수전(香水錢)'을 모아 군비(軍費)를 돕는 등의 정치적 활동을 펼쳤다. 난이 평정된 후 공적을 인정받은 신회 선사는 숙종(肅宗)의 귀의까지 받았다. 결국 남종선이 중국 천하를 석권한 계기가 됐음은 당연하다. 당시 제도불교에 있어서 북종선과 남종선의 주도권 교체에는 거사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엿보인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거제도 총명사 이미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대웅전 건립불사

전선사

2010년 완공예정

차질없는 건립을 위하여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행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진기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기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께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공 고

大韓佛敎傳統 曹溪宗 前 총무원장 능인

성명: 이상용 법명: 능인
성명: 이규상 법명: 해일

상기 2인 스님은 대한불교전통종계종 중헌종법에 의거 총무원장직을 박탈하고 영구제적 되었기에 이를 공고함

중앙연수원장: 법전
교육원장: 지도
호계원장: 해봉
중앙선원장: 명등
원로회: 지도스님 일동

2008년 12월 10일

중앙종회 의장 덕신 운암

공 고

◆법 명: 법광
◆성 명: 이재복
◆승려번호: 2546-1206
◆사찰명: 대원정사
◆소속: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직위: 대원정사 주지
◆주소: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상기인은 본 종 대원정사 주지직을 수행하면서 본종 중헌종법을 무시하고, 승려로서 풍기를 어겼기에 본종 징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1일자로 제적 하였음을 공고함.

불기 2552(2008)년 12월 1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징계위원회 호계원장 용암